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유형과 생의 의미수준*

김숙남** · 최순옥** · 신경일*** · 이정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건강은 여성의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중심의 건강문제 외에 여성의 역할, 인식, 경험, 신념 등 가족과 사회 내에서 여성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혼, 성폭력, 구타, 성차별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호문제에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문제 중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과 같은 사건은 여성의 생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이라 볼 수 있다. 홀로 되어 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된 여성가장들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학습해 나간다. 여성가장들은 가족 부양자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 자신들의 건강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가까웠던 중요한 관계와 아내의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와 고통 그리고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축소, 상실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 등을 겪게 된다(김영희, 1996; 나인옥,

1998).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장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직업을 얻는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적응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홀로된 여성의 적응이란 홀로됨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결혼전의 지위나 전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변화된 경제적 수준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수립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성정현, 1998). 여성가장들은 이러한 적응을 위해 자신의 주체적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아지지만,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신감의 결여 등으로 정체성이 혼란되고 삶의 상실감과 허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가장들은 여성가장이 된 후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우울과 절망, 고독에 빠져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며 생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한다(강인, 1998; 안명자, 1994).

이렇게 위기에 처한 여성가장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최근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가장들의 연령이나, 결혼기간, 여성가장이 된 기간 그리고 자녀수 같은 고정변인들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지원 및 성 역할 정체감 유형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

* 본 논문은 2001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외래강사

투고일 2002. 3. 21 심사회의일 2002. 3. 31 심사완료일 2002. 4. 11

이 확인된 바 있다(강인, 1998; 성정현, 1998; 한국여성개발원, 1996; Bursik, 1991).

이러한 변인 중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여성가장들의 사회적,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성정현, 1998).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격특성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Bem, 1975)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다. 이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생활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념과 실제 생활간의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대한 연구는 Bem(1975)의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일치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사람보다 두 성의 정체감을 동시에 가진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 특정 문화의 성역할 규준에 제약받지 않아 다양한 현대 사회의 요구에 잘 적응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어 더욱 적응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왔다. 그러므로 여성가장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 행위 및 적응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가장의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Bursik, 1986),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Bursik, 1986; Cheryl, 1982) 및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상태(Duffy, 1995; Scott, 1991) 같은 개념을 적응으로 보고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적응이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가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장의 적응을 생의 의미 발견 수준으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의 의미 추구이며 의미 추구는 내적 긴장을 증가시키는 하지만, 삶에 대한 열정과 희열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영속시키는 근본적인 동기로 작용하여(Frankl, 1963) 결국은 여성가장들의 삶에 대한 대처방식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장들의 생의 의미 수준을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변인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파악하여 생의 의미 수준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여성가장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파악하고 생의 의미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가장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여성가장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구분한다.
- 둘째, 여성가장들의 생의 의미 수준을 파악한다.
- 셋째, 여성가장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생의 의미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여성가장

여성으로서 대외적으로 가족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가정 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주도하고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여성을 의미한다(이운석, 1995).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내 4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 여성가장으로 등록된 여성을 의미한다.

2) 생의 의미수준

생의 의미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Frankl, 1969; Fabry, 1974) 혹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Chang & Burbank, 2000).

본 연구에서는 생의 의미에 대한 Frankl의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팀이 개발한 63문항의 4점 척도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성역할 정체감 유형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격특성을 소유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Bem, 1975).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개인의 사고와 행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생활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념과 실제 생활간의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득란(1992)이 한국사회의 남자와 여자에게 맞게 55문항의 7점 척도로 개발한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특정한 성을 반영하는 점수에 따라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형으로 구분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여성이 가장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와의 사별, 장기간의 별거, 이혼, 유기 및 배우자의 정신적 경제적 무능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사별과 이혼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사별로 인한 여성가장의 발생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생물학적인 요인 외에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와 산업화로 인한 중년남성의 사망률 증가에서 기인한다(안명자, 1994). 또한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장의 발생도 최근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경향의 특징에서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돌아감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장 가족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이렇게 여성가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프로그램은 아직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성가장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및 건강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곤란을 겪고 있으나 실제로 IMF이후에야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하나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여성가장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인 조력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 가족을 부양하며 가정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떳떳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여성가장 지원사업, 1999).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장들은 사회참여의 욕구를 왕성하게 가지게 되지만 아직까지 만연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 동안 가졌던 주부로서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과도기적 위기에 처해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감과 허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Frankl(1963)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상실함에서 오는 인생의 무가치감, 무의미감, 권태감, 고독, 불안감과 무엇인가 허전하고 텅 빈 느낌의 심리적인 상태를 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라고 하였다. 2차 세계대전시 나치수용소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 Frankl은 의미치료(logotherapy)이론을 제시하였다.

의미치료에서는 모든 생명에는 의미가 있으며, 인간에

게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가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서 의미를 추구할 내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Frankl, 1963: 1979).

그렇다면 생의 의미는 어떻게 발견해야 할 것인가? Frankl(1963)은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및 태도적 가치 등 세 가지 가치의 실현을 통한 생의 의미 발견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조적 가치실현은 창조적인 활동(노동, 취미, 임무에의 열중)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직업과 일을 통해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창조적 가치의 실현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서 인식되고 생활전반에 걸쳐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험적 가치실현은 세상의 경험이나 체험(예술 작품,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의미를 취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셋째, 태도적 가치실현은 인간이 곤경에 처했거나 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내적인 자유)를 변화시킴으로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고통 그리고 죄의식 및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바로 가장 고귀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실현할 최종적인 기회인 것이다. 즉, 태도적 가치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운명을 수용하고 고통을 견디어 내는 용기 그리고 불행 앞에서 보이는 의연함 등으로 실현된다. Frankl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태도적 가치를 포함시킴으로서 극한 상황에서조차 인간의 실존은 의미와 목적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생의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이혼이나 사별 같은 위기 사건에 처한 사람들(고병학 역, 1985; 성경현, 1998), 암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정지, 1995), 그리고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인생의 과도기에 선 사람들(김영혜, 1995) 처럼 기존의 생활방식과 태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의미의 결핍으로 인해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수준과 위기감과의 관계연구에서 삶의 의미수준은 위기감의 56%를 설명해주는 변량으로 확인되었으며(홍미혜, 1999),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미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재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는 감소되었다는 효

과가 보고되었다(김영혜, 1995).

따라서 배우자 상실과 그로 인한 역할변화 및 심리적, 현실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생의 의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여성가장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는 간호중재를 세우는데 구체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이란 자신의 속한 문화권내에서 생물학적 성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성격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에 비추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또는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성정현, 1998).

지금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운 것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이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온 학자가 Bem이다(1974). 그에 의하면 양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은 여성적 특성이라 생각되는 온화함, 따뜻함과 남성적 특성이라 표현되는 독립성, 주장성, 경쟁성 등 양면을 조화롭게 지니므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일치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개인보다 다양한 행동선택이 가능하여 역할 행동을 할 때 더 유연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능력있고 성취지향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인간은 상황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을 수정할 수 있으며(Cheryl, 1982) 특히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경우에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한다(Bursik, 1986). 즉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된 여성은 변화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가 변하면서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도 변화하며 이러한 여성들의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융통성이 클 수 있다(Bienstock, 1988). 혼자된 여성들은 불가피하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아내, 어머니로서의 책무로부터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비전통적인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장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여성가장들의 사고와 행위에 관련되고 결국 여성가장의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여성

가장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성정현, 1998; Kristner, 1994; Bursik, 1991). 여성가장이 된 후 여러 가지 활동 영역에서 남녀의 역할을 성에 의해 구분하거나 가족과 관련된 역할에서 여성은 가정에 속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만족과 정체성이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있다고 인식하는 태도인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여성에 비해 남녀의 역할을 성에 고정시키지 않고 남성과 동등하게 보고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태도 즉 비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여성이 더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이다(성정현, 1998).

이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Brown과 Manela(1978)의 연구에서도 비전통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질 경우 생활만족도와 적응수준이 높고, 여성본래의 역할 외에 현재까지 남성의 역할로 대표되는 가장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혼 이후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양성적으로 변화했다기 보다는 원래부터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비전통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연구들도 있지만(Fisher, 1994), 이혼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남성적 성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견해가(Amato & Booth, 1995) 좀더 설득력 있게 수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그에 따른 적응수준간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석하고 그것이 적극적 적응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생애 의미 수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탐색해보는 것은 여성가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 간호전략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생의 의미수준을 파악하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부산시내 4개 구에 소재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 등록된 여성가장 312명을 대상으로 2000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부산시내 16개 구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소재하는 4개 구를 임의 선정하고 해당지역 "일하는 여성의 집"을 방문하여 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협조를 구하였다. 현재 '일하는 여성의 집'에 등록된 여성가장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지를 이해하는 여성을 편의 표집하였다.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최종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299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생의 의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의 의미 측정 도구는 Frankl (1963; 1969; 1979)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미간행). 생의 의미 측정 도구는 자기자신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이해하는가, 보편적인 가치실현은 어느 정도인가, 생의 만족도와 자기초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

생의 의미 측정도구는 10개의 요인(요인1: 자기인식 및 수용, 요인2: 미래에의 열망, 요인3: 무가치감, 요인4: 생의 목적, 요인5: 생의 만족, 요인6: 역할인식, 요인7: 사랑체험, 요인8: 가족사랑, 요인9: 헌신, 요인10: 자기초월)들로 구성된 총 63문항의 4점 척도로 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Frankl(1963; 1969; 1975)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구성한 생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개념 틀에 맞추어 10개의 요인들을 3개의 국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자기인식 및 수용(요인1)과 역할인식 요인(요인6)은 의미발견을 위한 기본 전제 국면(11문항), 생의 목적(요인4), 헌신(요인9), 사랑체험(요인7), 가족사랑(요인8), 미래에의 열망(요인2)과 무가치감(요인3) 요인은 보편적인 가치실현(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정도인 의미실현 방법 국면(36문항), 그리고 생의 만족(5요인)과 자기초월(요인10)은 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으로서 의미발견의 결과 국면(16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생의 의미 점수의 범위는 최소 63점에서 최대 252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생의 의미수준 점수 175점 이하는 생의 의미 상실 단계로 실존적 공허상태를 말하며, 총 63개의 문항 중 13문항 이상에서 '그렇지 않다(2점)'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경우에 해당된다. 생의 의미 수준 점수 176점 - 201점은 생의 의미를 완전하게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생의 의미 추구단계를 말한다. 생의 의미 점수 202점 이상은 생의 의미 발견수준이 높은 단계로 확실한 생의 의미가 설정된 단계를 말하며 총 63개의 문항 모두에서 '그렇다(3점)'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뿐 아니라 13문항이상에서 '매우 그렇다(4점)'라는 강한 긍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정도는 63%였으며, Cronbach's alpha 는 .94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3이었으며, 각 국면별 Cronbach's alpha는 의미발견을 위한 기본 전제 국면은 .838, 의미실현의 방법국면은 .830, 의미발견의 결과 국면은 .884였다.

2) 성역할 정체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격 특성을 소유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Bem, 1975), 본 연구에서는 김득란(1992)이 한국사회의 남자와 여자에게 맞게 구성된 55문항의 7점 척도의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여성성 20문항, 남성성 20문항, 중립문항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해석은 Spence와 Helmreich(1979)가 제안한 중앙치 분할법을 채택하였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형으로 분류한다(김득란, 1992).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적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크면 여성성 유형으로,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크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적으면 남성성 유형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 둘다 각자의 중앙치보다 크면 양성성 유형으로, 두 점수가 중앙치보다 적으면 미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4이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 및

생의 의미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3) 여성가장의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생의 의미수준과의 차이검증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9)

특성	구분	실수(%)
연령	20-29세	4 (1.3)
	30-39세	80 (26.8)
	40-49세	165 (55.2)
	50세이상	50 (16.7)
종교	유	228 (76.3)
	무	71 (23.7)
학력	초졸	11 (3.7)
	중졸	59 (19.7)
	고졸	189 (63.2)
	대졸이상	40 (13.4)
여성가장이된 사유	이혼	104 (34.8)
	사별	88 (29.4)
	별거	11 (3.8)
	미혼	28 (9.5)
	남편의무능력	23 (7.8)
	기타	44 (14.7)
결혼생활 유지기간	1년미만	140 (46.8)
	1-2년미만	82 (27.4)
여성가장이된 기간	2-3년미만	9 (2.7)
	3년 이상	68 (22.7)
	1년미만	226 (75.6)
부양가족 수	1-2년미만	35 (11.7)
	2-3년미만	5 (1.7)
	3년 이상	33 (11.0)
	없다	6 (2.2)
월수입	1명	84 (30.1)
	2명	118 (42.3)
	3명	46 (16.5)
	4명이상	25 (8.9)
	50만원이하	239 (86.9)
월수입	50만원-100만원이하	31 (11.3)
	100만원-150만원이하	5 (1.8)

* 각 항목별 frequency missing 있음

2.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표 2>와 같이 여성성 유형이 13.7%, 남성성 유형이 13.4%, 양성성 유형이 37.8%, 미분화 유형이 35.1%로 양성성 정체감 유형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2>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 (N=299)

성역할 유형	실수(%)
여성성	41(13.7)
남성성	40(13.4)
양성성	113(37.8)
미분화	105(35.1)

3.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수준은 <표 3>에서와 같이 평균 173.46 ± 16.09점(최소 63점 - 최대 252점)이었다.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수준은 57.2%가 생의 의미 상실 단계인 실존적 공허단계였고, 42.8%는 생의 의미를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였으며, 6.0%는 생의 의미 발견수준이 높은 단계였다.

<표 3>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N=299)

생의 의미 점수(수준)	실수(%)
202점 이상 (생의 의미 발견수준이 높은 단계로 확실한 생의 의미 설정단계)	18(6.0)
176점 - 201점 (생의 의미를 완전하게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생의 의미 추구단계)	110(42.8)
175점 이하 (생의 의미 상실단계로 실존적 공허상태)	171(57.2)

4.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생의 의미 수준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생의 의미 수준 차이에서는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1.93, P=.000).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여성성과 남성성 유형(p=.026), 여성성과 양성성 유형(p=.004), 남성성과 미분화 유형(p=.005),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p=.000)군에서 생의 의미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여성가장들은 남성성과 양성성 유형을 가진 군

에서 생의 의미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겠다.

〈표 4〉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생의 의미 수준 (N = 299)

성역할정체감 유형	생의 의미수준 Mean(SD)	F값	P값
여성성	168.21(13.49)	11.39	.000
남성성	179.19(16.05)		
양성성	178.88(16.66)		
미분화	168.29(16.26)		

V. 논 의

본 연구는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생의 의미 수준을 파악하고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발견수준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여성가장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여성성이 13.7%, 남성성이 13.4%, 양성성이 37.8%, 미분화형이 35.1%로 양성성 유형과 미분화형 유형이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한 결과(이형초, 1992)는 여성성이 31.5%, 양성성이 29.7%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중년기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가족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여성적 특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시기이므로 일반여성의 경우 여성성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성은 결혼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Hoffman과 Fidell(1979)이 주장한 것처럼 결혼한 일반여성 특히 결혼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중년기의 여성에게는 여성적인 특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여성가장과 달리 일반여성들에게 여성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가장의 경우 미분화 유형이 양성성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대상자의 46.8%가 여성가장이 된지 1년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성가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남성적 특성이 강화되어 가는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분화형은 선행연구 결과 여학생들이 많이 지니는 성향으로 제시되고 있다(박영숙, 김영임 & 박연환, 1998; 이형초, 1992; 장경순, 1989). 이는 최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여성들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전통적 성역할과 진

보적 성역할간의 긴장과 혼미가 계속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결국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여성가장들의 경우 일반중년여성들과는 달리 기존의 여성적 특성과 함께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체감 유형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성성과 미분화형 성역할 정체감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수준은 평균 173.4점(범위 63점 - 252점)으로서 실존적 공허상태에 속하였다. 이는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연구결과(이정지 외, 2000)에서 나타난 168.1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의 의미 수준점수 187.7점보다는 낮았다(최순옥 외, 미간행).

확실한 생의 의미를 설정한 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6%였고, 생의 의미를 완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추구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42.8%, 생의 의미 상실단계의 실존적 공허상태에 있는 대상자는 57.2%로 여성가장의 절반 이상이 실존적 공허상태였다. 중년기 부인을 대상으로 PIL(인생목적 검사)을 이용하여 생의 의미를 연구한 김은아(1992)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50%가 중간수준인 생의 의미 추구단계에 있음을 비교해 볼 때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수준은 일반중년 여성들의 생의 의미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실존적 공허상태로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

Fabry(1974)는 삶의 의미와 목적감 상실은 급격한 삶의 변화, 선택, 결정의 시기 등 삶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의 심리적 성숙과 적응이 어머니, 아내라는 여성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규범아래서 성장해 왔으며, 여성의 행복은 남편과 아이에게 헌신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혼자된 여성들은 자기존중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상실된다(성정현, 1998). 또한 관계중심의 발달을 주로 해 온 여성들이 혼자됨으로 인해 가족원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재고하게 되어 생의 의미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의미수준이란 개인이 자신의 실존에 부여하고 있는 의의와 목적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의미수준이 높으면 생활사건들이 개개인에게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고 위기가 자아정체감의 재확립, 목표수준의 재설정, 그리고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긍정적 과정의 선행요소가 될 수 있다.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수준과 위기감에 관한 연구에서도(홍미혜, 1999) 삶의 의미는 위기감의 56%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삶의 의미수준이 높으면 위기감을 적게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장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재고하게 하여 자아정체감을 다시 확립하고,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고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내적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생의 의미차이에서는 남성성 유형과 양성성 정체감 유형을 가진 군에서 생의 의미 수준이 높았고 여성성과 미분화형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가진 군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F=11.39, P=.000$). Bem의 양성성 이론이 발달되면서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능력 있고 성취지향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본다(Bem, 1974; 김영희, 1990). 이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비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보다 이혼 후 적응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heryl, 1982). 실제로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양성성이 심리적 적응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성가장들의 경우는 성취지향적인 남성적 특성이 더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평균비교에서는 양성성 유형보다 남성성 유형을 가진 군에서 생의 의미 수준이 좀더 높게 나왔을 수 있다.

한편 여성성 정체감 유형을 가진 군에서 생의 의미 수준이 가장 낮게 나온 결과를 볼 때, 정서적이고 수용적이며 대인관계적 특성인 여성성이 혼자 살아가는 여성가장들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양성성 모델 이후 제시된 남성성 모델에 의하면(Whitley, 1984) 양성성 차원보다 남성성 차원이 심리적 안녕감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양성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높은 자존감은 양성성의 특징이라기 보다 남성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가장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성역할 특성이 양성성인지 남성성인지 여성가장들의 심리적 적응 수준과 성역할 유형에 관한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에는

전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지지, 성역할 태도와 같은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혼자된 여성이 새로운 역할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어떠한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성정현, 1998). 이는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 결혼기간과 같이 돈이 필요하거나 변화불가능한 요인이 아니라, 태도적, 심리적 요인이므로 교육이나 중재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남성성과 양성성 정체감 유형을 가진 여성가장들의 생의 의미 수준이 더 높았던 것은 여성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여성들은 일하는 세계에 대한 경험부족과 남편에게 의지했던 사회적, 경제적 의존성이 일하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생의 의미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가장이 부딪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혼자된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을 주체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세계에 머물러 살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양성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장벽들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로 된다.

여성가장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여 삶에 적극적으로 정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은 그 영향을 조정하기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은 혼자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여성가장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 그러므로 여성가장들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 정체감 요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가장의 적응을 생의 의미 수준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작업은 의미요법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간호대상자인 인간존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올바른 인간관과 간호관을 확립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간호철학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생의 의미 수준을 파악하고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발견수준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0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부산시내 4개 구에 소재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 등록된 여성가장 29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Crumbaugh와 Maholick(1964)이 개발한 PIL을 참고로 하여 Frankl(1963; 1979)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새로 개발한 '생의 의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미간행), 성역할 정체감은 김득란(1992)이 한국사회의 남자와 여자에게 맞게 구성한 55문항의 7점 척도인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여성성이 13.7%, 남성성이 13.4%, 양성성이 37.8%, 미분화형이 35.1%로 나왔다.
2.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는 평균 173.46 ± 16.09점(최소 63점 - 최대 252점)이었다.
3.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수준은 57.2%가 생의 의미 상실단계인 실존적 공허 단계였고, 42.8%는 생의 의미를 완전하게 발견하지 못한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였으며, 6.0%는 생의 의미 발견수준이 높은 단계였다.
4.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생의 의미 차이에서는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유의하였다($F=11.93, P=.000$). Scheffe의 추후검정 결과 여성성과 남성성 유형($p=.026$), 여성성과 양성성 유형($p=.004$), 남성성과 미분화 유형($p=.005$),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p=.000$)군에서 생의 의미수준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여성가장들의 생의 의미 수준은 대부분이 실존적 공허상태로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남성성 성정체감 유형을 가진 군에서 생의 의미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가장의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에서는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 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여성가장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여성가장의 적응수준이 여성성과 남성성의 독립적 영향인지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인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 여성가장의 사회경제적,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인 (1998).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배우자 사별스 트레스와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병학 역 (1985). Fabry, J. B. (1974). *The pursuit of meaning: Viktor Frankl, logotherapy and life*. CA : Hillsborough. *의미치료*. 서울: 양영각.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된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혜 (1995). *의미요법 집단상담이 20대 미혼여성의 삶의 목적,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희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아 (1992). *중년기부인의 자아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인옥 (1998). *이혼가정 모자간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숙, 김영임, 박연환 (1998).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비교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1), 51-62.

부산여성회,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일하는 여성의 집 (1999). *여성가장 지원사업 활동보고 및 정책제언*.

성정현 (1998). *성역할 태도와 이혼여성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명자 (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석 (1995). *도시지역 여성가장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지 (1995). *의미간호요법이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목적과 의미발견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지, 신경일, 최순옥, 김숙남, 이부현 (2000).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검증. *대한간호학회지*, 30(4), 982-994.
- 이형초 (1992). 성역할 정체감이 여성의 우울감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순 (1989).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사회·문화적 성이태올로기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지 (2002). 일부지역 성인의 생의 의미. *미간행*.
- 한국여성개발원 (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홍미혜 (199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의미수준이 중년기여성의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 Booth, A. (1995).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58-66.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75). Adaptability :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29-39.
- Bienstock, C. R. (1988). *The effect of sex role attitudes on coping patterns in divorced single parent mothers*.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
- Brown, P., & Manela, R. (1978). Changing family roles. *Journal of Divorce*, 1, 315-328.
- Bursik, K. (1986). *Adaptation to marital separation and divorce: a context for ego development in adult women*.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Bursik, K. (1991). Adaptation to divorce and ego development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300-306.
- Chang, S. O., & Burbank, P. M. (2000). Meaning in life among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30(2), 259-271.
- Cheryl, C. (1982). *The relationships of locus of control, sex role attitudes, and conceptualization of separation experience to long-term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 Crumbaugh, J. C., & Maholick, L. J. (1964).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in Life Test*. Munster : Psychometric Affiliates.
- Duffy, M. E. (1995).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behaviors of divorced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2(3), 1-12.
- Fabry, J. B. (1974). *의미치료*. 고병학(역) 서울. 하 나의학사, 1999
- Fisher, N. B. (1994). *Exploratory study of how women changing during separation/divorce proce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Frankl, V. E. (1963). *Man's searching for meaning :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Y : Washington Square Press.
- Frankl, V. E. (1969).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Ko, B. H. Translation. (1980). St Paul. Press.
- Frankl, V. E. (1979).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 Selected papers on logotherapy* NY : Washington Square Press.
- Hoffman, D. M., & Fidell, L. S. (1979). Characteristics of androgynous, undifferentiated, masculine and feminine middle-class women. *Sex Roles*, 5, 765-781.
- Kristner, M. A. (1994). *Adjustment to divorce as related to stability and change in identity in a midlife cohort of wome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Scott, E. L. (199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emale adjustment to marital dissolution*. Ph. 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Spence, J. T., & Helmreich, R. (1979). The many faces of androgyny: A replay to Alocksley and Colt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31-1046.
- Whitley, B. E. (1984).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 meta-analysis. *Sex Roles*, 12, 207-225.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the Meaning in Life for a Matriarch

Kim, Sook Nam* · Choi, Soon Ock*
Shin, Kyung Il** · Lee, Jeong Ji*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sex role identity and the meaning in life(MIL) of matriarchs and analyze their relationships to offer basic data for effective nursing strategies for improving MIL.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the 10th of August to the 30th of November, 2000. The subjects were women registered in an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 for unemployed matriarchs which is held in the Working Women's Center in Busan.

The measurement tools of this study were MIL(unpublished)developed by researchers and sex role inventory designed by Kim Deuk Ran(1992).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ex role identities of matriarchs were feminity 13.7%, masculinity 13.4%, androgyny 37.8% and undifferentiated 35.1%.
2. The mean MIL for matriarchs was 173.46 ± 16.09 .
3. The levels of MIL were 57.2% of the subjects felt a loss of meaning in life, i. e. existential vacuum, 42.8% were in pursuit of meaning but had not discovered it completely and 6.0% felt they had established meaning in life.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IL levels, concurrent to 4 types of sex role identities($F=11.93$, $P=.000$). And according to Scheffe's post test, between feminity and masculinity, feminity and androgyny, masculinity and the undifferentiated, androgyny and the undifferentiat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most matriarchs felt loss of meaning in life, i. e. existential vacuum, and the group with masculine sex role identity had the highest level of MIL.

In conclusion, the factors related to masculine sex role identity are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strategies for improving levels of MIL.

Key words : Matriarch, Sex role identity,
Meaning in life

* Professor, Pusan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Lecturer, Pusan Catholic University